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29 <끝>

신화와 우주관

인간은 먼 과거부터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적 집단의 특징을 규정짓는 이야기 즉 신화를 만들어 왔으며 이 속에는 우주, 인류, 문화 등의 기원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독일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는 신화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상을 나타낸다고 했다. 즉 인간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신화로 엮는다. 따라서 신화는 과거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프랑스의 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는 과거에 의해 현재를, 또 현재에 의해 미래를 설명하는 한편 이 세계의 문제와 모순들을 마술처럼 해결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신화는 과학에 비해 인간에게 환경을 지배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힘을 더 많이 가져다주는 못했지만, 인간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환상과 우주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환상을 가져다 주었다고 했다. 한편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신화를 꿈의 실체가 자라나는 그루 터인 집단 무의식을 드러내는 독특한 기능을 가졌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신화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외적인 인물이며 신화를 부정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스며있는 조상전래의 삶을, 다시 말해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더 나

아가 자기가 속한 사회와 자신이 연관되었다는 사실마저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신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역사이며 또한 그 나라 역사의 시원(始原)이다. 이처럼 신화는 그 시대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상호 관계를 상징하는 일종의 도덕적이고 윤리이며 자연의 합목적적 법칙 성이다. 인간 집단 전체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과 당시의 일반적인 규칙성이 내재된 문화상을 띄고 또 전통성을 표상한다. 그러면 우리의 단군신화를 살펴보자. 하늘의 최고신인 환인이 인세(人世)를 위하여는 환웅에게 천부인 3개와 3천여 명의 무리를 데리고 태백산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가게 했다. 환웅은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穀), 명(命), 병(命), 형(刑), 선(善), 악(惡) 등 인간에 관련된 360여 개의 일을 맡아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 그때 공과 호랑이가 사람 되기를 간청하자 환웅은 속과 마늘을 주어 햇빛을 보지

않고 100일간 지나도록 했다. 공은 이를 잘 지켜 여자의 몸을 받아 응녀로 태어났다. 그녀가 아기 가지를 기원하자 환웅이 사람으로 변해 응녀와 결합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 사람이 단군 왕검으로 우리 민족의 시조이다. 그는 평양성에 정도하여 조선을 세웠으며 1908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이러한 단군신화에는 몇 가지 깊은 뜻이 들어있다. 첫째, 하늘을 뜻하는 환인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환웅은 하늘과 땅을 이어 천지의 조화를 이루었으며, 또한 하늘의 신인



그림 · 문병성

현대 신화에 신비의 윤기를 더하자

단군신화 한국정서 근원

현대인들, 자연과 동떨어진

윤기없고 기계적 신화 창조

환웅과 지상의 응녀가 결합해 나온 단군은 천지의 결합체로서 이원적 대립을 융합하여 합일하는 조화를 나타낸다. 둘째,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자는 뜻에서 환웅은 많은 무리를 데리고 왔는데,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이롭게 한다는 홍익사상을 공동체적 우주관을 나타낸다. 셋째, 하늘과 땅 그리고 신과 인간의 상호 관계로 풀이 합쳐 하나의 유기적 관계를 이루는 자연 친화적이고

의 근원적 정서로써 우리 모두의 제8식 아이피에 저장되어 있다. 비록 어떤 사람이 단군의 조각상을 미신적인 허상으로 보고 이것을 파괴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몸속에는 단군신화의 정신이 흐르고 또 한민족의 씨앗이 움트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신화를 만든 옛 조상의 삶에서 만들어진 피와 살을 받아들였으며 또 앞으로 후대에 전수되기 때문

다. 신화는 고도로 세련된 형상과 작업을 통해 마음과 가슴을 그리고 모든 존재를 채우며 둘러싸고 있는 궁극적 신비를 향하게 하는 풍향계라고도 한다. 이러한 풍향계를 설치하는 곳이 바로 법계이다. 때문에 불법의 법계는 특정한 민족을 초월한 전 인류와 자연 전체에 관한 근원적인 신비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신화 속에는 당시의 집단적 이데올로기나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집단 무의식이 내재하며 또한 인간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와 본질에 대해 알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므로 신화는 결코 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현재 우리들은 더 분화되고 전문화된 신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불행하게도 옛날과 달리 자연과 동떨어진 채 정서와 신비가 결여된 윤기 없는 기계적 신화를 쓰고 있다. <대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여러분! 시간은 아까운 것이다. 저 사비비 학도는 분주히 선(禪)을 배우고 도(道)를 배우며, 명칭을 파악하고 연구(研究)를 알아차리며, 부처를 구하고 조사를 구하며, 선지식을 찾아서 뜻으로 헤아린다. 착각하지 말라, 도 배우는 이들이여! 그대들에게는 한 부모가 있을 뿐인데, 다시 무엇을 구하는가? 그대 스스로를 돌켜 보아라. 옛 사람이 말하기를, '아주나뎡타가 머리를 잃어 버렸다, 찾는 마음을 쉬어버린 곳에서 곧 할 일이 없어졌다'라 하였다.

선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도는 알아차리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선은 언어가 아니고 도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나 조사나 선지식이니 하는 것은 말일 뿐이고, 이 말들이 가리키는 것은 곧 선이니 도니 하는 말이 가리키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 모든 말들이 가리키는 것은 곧 '나(汝)'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글 쓰며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이다. '나'는 항상 '나'일 뿐, '나'에게서 모자랄 수도 없고

'나'에게서 지나칠 수도 없다. 말로는 이렇게 '나'라고 하지만, '나'는 어떤 정해진 무엇이 아니다. 정해진 무엇이 아닌 '나'가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를 확인하려면, 그 무엇이든 정하지

말고, 정해진 그 무엇에서 찾지도 말고, 지금 바로 정해짐 없이 정하고 있는 여기를 잘 살펴야 한다. 여기는 정해진 그 무엇도 없기 때문에 가볍기가 한이 없지만, 모든 움직임이 이 위에서 이루어 지므로 무겁기가 한이 없기도 하다.

지금 여기 눈앞에서 모든 것은 흘러가고 있다. 흘러가는 여기를 잘 살펴라. 그러면 흘러가지 않는 것이 있음을 문득 알아차릴 것이다. '나'를 찾는 순간 도 이와 같다. 의식 위에 드러나는 모든 것은 마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

다. 버릇이 된 과거를 지키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나'를 만나려면 바로 여기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 오직 이 길 뿐이라는 믿음에 기대어서 두려워 말고 과거를 버리고 뛰

어들어야 한다. '나'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찾는 것은 늘 의식의 표면 위로 향하여 있다. 물결 위에서 물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리석은 추구를 일컬어 바깥으로 찾아다니는다고 하거나 자기의 머리를 찾아다니는다고 한다. 물결 위에서 물결 보기를 멈추어버리면 보이는 것은 물밖에 없듯이, 바깥으로 찾아다니는 의식을 놓아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나'이다. 그 무엇이든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나'가 문득 드러난다. 어떤 생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므로 '나'는 마치 허공처럼 붙잡을 것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그러한 '나'가 바로 모든 존재의 말바닥으로서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온다. 이제 올 곳으로 온 것이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⑫

과거를 붙들고 있지 말라

이렇게 있었다 반목 풀고 마음 열어야 연인 상당수 종교 갈등... 아난이 존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쟁을 일으키려 한대도 같이 싸우지 말라. 분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고뇌를 맛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天人)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뇌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석영인연경>

영어로 배우는 불교 용어... 사찰 음식 temple food. Breakfast traditionally consists of rice porridge and pickles. Under The Jogye Order, five pungent herbs are avoided: garlic, chives, leeks, onions and asafoetida. All the food is prepared with foodstuffs carefully chosen to help the eater reduce the 'Three Poisons' of greed, hatred and ignorance.

대한민국 유일의 최고위치 특급 사찰터 암자/명당 중 명당자리 급매. 건물 60평 포함 총 880평 사정상 급매(₩370,000,000). 2~3층 증축가능 / 사정상 급매. 경기도 가평군 북면 산중의 천연임반수 연못. 전기 전화 시설 원비 / 차량진입로 포장 완료. 고시원 및 수련원 / 별장지로 최적. 연락처 : 031-582-5581, 011-751-1771 / 019-216-3333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5월은 실록의 계절입니다. 우리결혼할까요? 10년 노하우의 공문답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불자 인연을 찾아 현대로 지금... 당신을 기다리는 인연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원장 이영숙 함장. 대후, 초·재혼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사진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현대 결혼 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 032)654-5411 연구실 : 032)346-5422 휴대폰 : 011) 288-2944

반야연립주택분양접수. 분양 신청 대상자: 비구니 승려에 한함. 분양 내용: 평수 13.45평, 15.6평, 23.57평. 세대수 12세대, 4세대, 2세대. 분양가 3,830만원, 4,450만원, 6,720만원. 공용시설: 34.85평의 반야선원. 위치: 경남 아동군 화개면 삼신리 95-1. 준공예정일: 2002년 7월. 연락처: 055-883-2097, 019-530-2097. 반야정사 주지 대은 합장

大韓佛敎法華宗 第6代 宗正 九菴 大宗師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불기 2546년(2002) 5월 27일(음 4. 16) 午前 2시에 白楊山 白花院 觀音寺에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영결식: 불기 2546년(2002) 5월 31일 금요일 (음 4.20) 오전 10시. 영결식장: 백양산 백화원 관음사. 다비장: 의령 일불사 연화대. 문의처: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 전화 (02)762-2678, 764-2678. 전승 (02)747-5044. 백양산 백화원 관음사. 전화 (051)327-5095. 大韓佛敎法華宗 第6代 宗正 九菴 大宗師 宗團葬 葬禮委員會